

현대 Ecobrief 000614

■ EU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처리에 관한 최종 지침(안) 제출

○ 유럽 집행위원회는 6월 13일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지침(안)을 제안함

- EU 조약 175조¹⁾에 근거한 'WEEE²⁾에 관한 EU 지침(안)'과 EU 조약 95조³⁾에 근거하고 있는 '유해물 사용 금지에 관한 지침(안)' 등 두 개의 독립된 지침으로 작성됨
- 이는 WEEE 지침에 따라 제품 생산과정에서 유해물의 사용을 금지하자는 환경장관 마고 월스트롬의 제안에 대해 관련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였고
- 스웨덴과 덴마크 같은 EU 회원국들이 일방적으로 유해물 금지법안을 제정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WEEE 처리 지침(안)

- 당초 계획보다 재이용 및 재활용 목표 수치가 낮아짐

| 품 목 | 기존 지침(안) | 최종 지침(안) |
|--------------|----------|----------|
| 대형 가전제품 | 90% | 75% |
| 컴퓨터 장비 | 90% | 65% |
|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 | 70% | 50% |
| 음극선 관 | 70% | 70% |

- 회원국 국민들은 연간 일인당 최소한 4 kg의 폐기물을 지자체를 통해 수집해야 함
- 지침 시행 후 5년 후부터 이에 제조업체는 제품에 따라 수집된 폐기물의 50~75%를 재이용 하거나 재활용 하여야 함

○ 전기·전자제품에 유해물 사용 금지에 관한 초안

- 신규 제품에는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등의 중금속과 耐焰제인 PBB, PBDE의 사용이 2009년부터 금지되는 것을 골자로 함
- 유럽의회의 환경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은 PVC 아기 장난감에 프탈레이트(phthalates)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과학적인 증거들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 새로이 규정된 유해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이의에 대해

1) 175조는 환경법에 관한 것으로서 최소 한도의 기준을 설정함

2)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3) 95조는 시장의 조화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항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므로

- 유해물 금지 지침(안)은 WEEE 지침이 채택된 이후에 승인될 가능성이 큼
 - EU 정부들과 유럽의회가 지침(안)을 승인하면, 특정 물질의 사용금지를 앞당기려는 회원국은 환경이나 보건에 대한 위해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 EU의 승인을 얻어야 함
- 한편 집행위원회는 초기에 지침에 포함시키려 했던 환경친화 생산업체와 설계 표준에 관한 언급을 제외함
- 대신 표준 설정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은 금년 후반기에 집행위위원회의 기업분과에서 초안이 만들어질 전기·전자제품의 다른 지침에 담게 될 것임
 - 이는 가을에 발간될 EU의 통합제품정책(Integrated Product Policy) 보고서에 통합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전망
-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처리 지침의 최종안이 만들어진 것을 계기로 기존에 논의되어 온 자동차, 배터리, 포장재 외에 다른 공산품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 EU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품목의 폐기물 처리가 큰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기준학 연구위원(02-3669-4097)

hiemjhki@shinbiro.com